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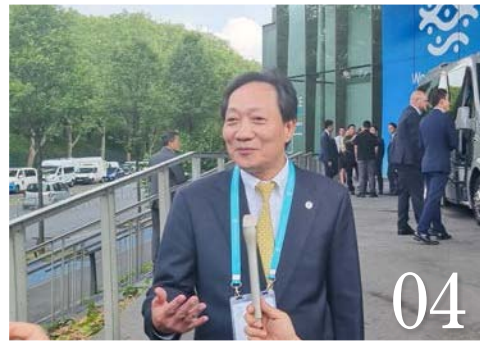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Show

2023. 07 Vol. 616



Contents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AGAZINE 2023 vol. 616



BCCI Special

- 04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 위한 제17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참가
- 06 제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부산상공회의소 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일 2023년 7월 3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CEO 취향저격

- 08 부산의 대전환을 찾아서
한-일 평화교류의 메신저 '조선통신사'
- 12 해외 여행지 추천
태초의 자연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하와이
- 16 메시지 인 시네마
기세의 롯데, 프로야구 시즌을 더욱 즐겁게 할 영화들
- 20 가격의 인문학
여름밤, 별의 의미



ZOOM in BCCI

- 22 STORY OF 캡틴장
- 24 사진으로 보는 부산상공회의소 2023년 상반기
- 26 기업포커스
부산 대표 중견기업 'SUNBO'
- 30 Look at Me
스타트업 '쥬투스'

경제 트렌드

- 38 경제키워드
- Big Change 시대, 성공 기업의 경영전략
- 애플 Vision-Pro 출시와 MR(혼합현실) 기술
- 42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 44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 44 멤버스 라운지
-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

트렌드 TALK

- 34 트렌드 TALK
- 여름철 더욱 조심해야 할 뇌질환 '뇌졸중' 바로 알기
-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경제 트렌드 '로코노미'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위한 제17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참가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과 최삼섭 부회장, 김운석 상임의원 등 부산상공회의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단은 프랑스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4차 경쟁 PT 현장 및 대한민국 공식 리셉션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쳤다.



미래·약속·보답·연대 '부산 이니셔티브' 강조한 4차 경쟁 PT

현지시간 6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된 제172차 국제박람회 총회 4차 PT에서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며 “함께 지속하는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메시지로 BIE 회원국 대표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다. PT는 오디션쇼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대표 이수인 등 4명의 연사가 발표를 하였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도전의 도시이자 미래의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 엑스포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70년전 전쟁으로 황폐화됐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만큼 이제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사회와 경험을 공유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4차 PT 현장에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각국 대사 및 초청 인사들의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한층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11월 최종 개최지 결정까지 얼마 남지 않은만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유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번 경쟁 PT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보여주는 기회였다”며 “4차 PT이후 부산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것 같은 만큼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존 부산다방과 프랑스 파리 한국 문화원에서 기념촬영



장인화 회장 대한민국 공식 리셉션 등 현지 곳곳 누비며

유치 활동 펼쳐

4차 PT 다음날인 6월 21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공식 리셉션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역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최삼섭 부회장, 김운석 상임의원, 안성민 시의회위원장, 강철호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각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리셉션 행사는 BIE 회원국 대표단, 파리 주재 외교관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의 유치 지원단은 공식 행사 외에도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 한국 문화원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존인 부산다방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펼쳤다.



BIE총회장 입구에서 장인화 회장과 강철호 시의원, 김운석 상임의원 기념촬영

르노그룹 방문 후 기념촬영



르노그룹 본사도 방문하여 미래차 생산 시설 투자 협의

한편 이번 방문동안 장인화 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파리에 있는 르노그룹 본사에도 방문하여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르노그룹 귀도 학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을 통해 르노그룹의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미래차 생산 시설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부산이 미래차 협력 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르노그룹과 협력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간담에서 장인화 회장은 귀도 학 부회장에게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르노그룹의 주요 생산 거점인만큼 부산 공장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르노그룹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계도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의 미래차 사업이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상 보러가기

장인화 회장 제172차 BIE 총회 참석 및 르노그룹 방문 영상





제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6년 만에 개최된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제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6월 9일(금) 오전 9시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상공회의소 주최로 6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한일 주요 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한·일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시간 가져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지역상의를 대표해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과 국내 5대 그룹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지주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일본 측은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을 비롯해 도리이 신고 오사카상의 회장, 우에노 다카시 요코하마상의 회장, 다니가와 히로미치 후쿠오카상의 회장 등과 일본의 대기업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양국 기업인들은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 시간을 가졌다.

한·일상의 회장단 공동성명 '부산 선언' 발표

이 날 행사에서 한일상의 회장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경제안보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재구축 ▲탄소중립 ▲AI거버넌스 구축 ▲AI시큐리티 ▲디지털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한일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른 경제단체와도 연계하여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수습되고, 해외의 인적 왕래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자매 도시 등 지방 차원의 교류 재개를 추진하며 경제, 관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은 교류를 실현하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장인화 회장은 행사장에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가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에서 개최된 것은 양국 경제계가 주요 이슈에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한일 경제계가 2030부산월드엑스포 지지를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한 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가 기대되며, 향후 양국 간의 경제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장인화 회장은 공식 의견교환 시간에 지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애로해소 차원에서 현재 운영중인 부산-나리타 노선 외에도 도쿄 시내로의 접근성이 좋은 부산-하네다 항공편 노선을 신규로 개설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일본상공회의소 고바야시 켄 회장

일본상공회의소 고바야시 회장은 “양국 관계가 개선의 궤도에 오르게 되어 기쁘다”며 “한일 기업이 서로 지혜를 나누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는 순수 민간 차원의 협의체로서 양국 상공회의소가 보유한 광범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일 지역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등 대표 경협 채널로 인정받아 왔다. 다음 제13차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2024년에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 행렬도(출처_대영 박물관 소장)

한·일 평화교류의 메신저 조선통신사

글·사진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범어사 사명대사 진영 (출처_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임진왜란을 딛고 한·일 관계 평화 국면으로

최근 들어 그동안 경색되어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이라는 아픔 뒤에 한일은 평화의 관계로 다시 나아간 적이 있다.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1598년 정유재란을 일으키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임진왜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군의 조선철수를 명하고 대마도주에게는 조선과의 교섭을 명했다. 대마도주는 1599년과 1600년에도 사신을 보내고 포로를 송환해 오는 등 성의를 보였으나 조선은 응하지 않았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일본의 구애와 성의 있는 태도에 결국 조선은 1604년 탐적사(探賊史)라는 이름으로 사명대사를 대마도로 보냈고 이에야스는 사명대사를 교토로 초청하여 조선침략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이에 조선은 3가지 조건을 걸고 에도 막부의 결의를 확인한다. 첫째 일본에 끌려간 포로를 송환하라, 둘째 선왕의 능묘를 파헤친 도굴꾼을 잡아내라, 셋째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년의 세월동안 12차례의 통신사가 일본을 오갔다.



- 1 조선의 국서를 싣고 일본의 강을 건너는 배(출처_국립중앙박물관)
- 2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된 조선통신사선
- 3 조선통신사 역사관에 사진으로 전시된 통신사 정사 조엄의 조제곡 해사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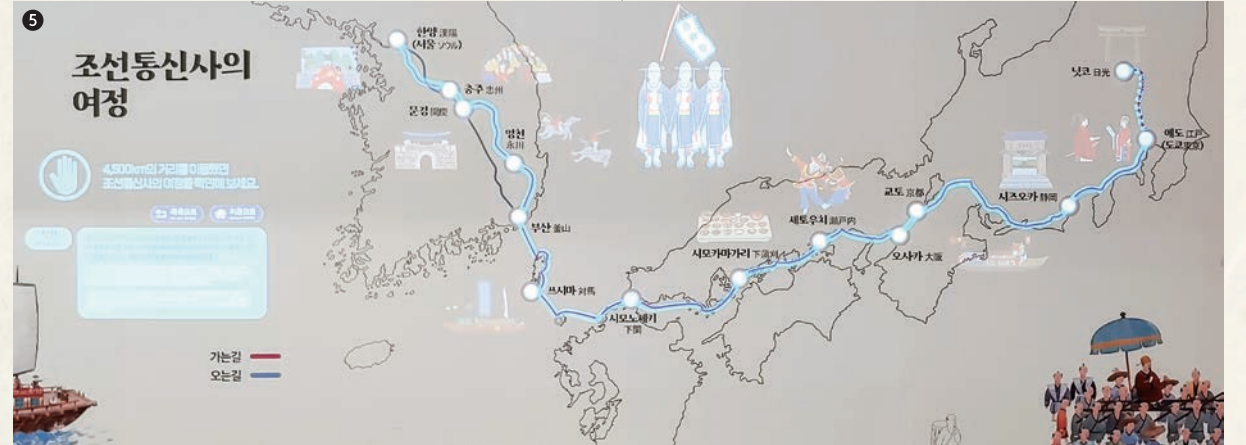
평화교류의 시작 조선통신사의 앙래

1607년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가 1차로 파견된다. 일본에 끌려간 포로를 송환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으며 1617년 2차, 1624년 3차로 포로를 송환해 왔다. '민음으로 통하는 사절단'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통신사(通信使)는 1636년 4차 부터였으며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에 따라 국왕의 국서를 지니고 막부 최고 권력자인 쇼군(장군)의 계승을 축하하거나 외교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파견되었다. 통신사의 규모는 평균 500명 정도로 조직되었다. 통신사행의 가장 대표 격은 정사(正使)·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의 삼사(三使)였다. 삼사는

쇼군에게 국왕의 국서와 예물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들이었으며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통역과 실무를 담당했던 통사(通事), 통신사의 주치의인 의원(醫員), 말을 타고 재주를 부리는 마상재인(馬上才人), 그림을 잘 그리는 화원(畫員), 악기를 다루는 악사(樂師), 요리를 맡은 도척(刀尺), 춤과 노래로 일행의 무료함을 달래주었던 소동(小童)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들이 따랐다. 통신사의 행로는 전체 길이만 왕복 4,500Km에 달했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었다. 한양에서 출발하여 충주, 안동, 경주 등을 거쳐



- 4 부산박물관에 전시된 조선통신사 마상재인 그림
- 5 조선통신사 역사관에 전시된 조선통신사의 여정





부산에 도착했고 동래부사의 환대를 받으며 일본으로 출항하기 전까지 부산에 머물렀고 부산의 명승지를 여행하기도 했다. 일본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검고 거친 바다인 현해탄을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따라서 통신사 일행은 바다의 기상을 보여 하염없이 출항을 기다리기도 했고 바다를 건너기 전 영가대에 모여 해신(海神)에게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해신제를 지낸 뒤 출항했다. 통신사 일행이 나누어 탄 6척의 통신사선은 대마도, 이키, 아이노시마, 시모노세키를 지나 오사카에 도착을 했고 오사카에서부터 요도우라까지는 일본에서 제공하는 배를 타고 이동했다. 요도우라에 상륙한 이후부터는 육로를 통해 교토, 나고야 등을 거쳐 에도에 도착했다. 특히 나고야에서 에도까지 이동 중에 만나는 강에는 275척의 배를 띄우고 3,036장의 판자를 까는 등 통신사의 편리한 이동을 도왔다. 이외에도 예인선이 144척, 뱃사람이 3,060명, 대마도 호위무사 800명, 가마꾼 2,600명, 말 800필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행렬이었다.



조선통신사행렬도 판화(출처_부산광역시립박물관)

- ① 조선통신사의 출항지이자 해신제를 지냈던 영가대의 1912년 전후 모습
- ② 조선통신사의 출항지이자 해신제를 지냈던 영가대 복원 후 현재
- ③ 조선통신사 일본여행지도(출처_울산박물관)

양국의 다양한 교류에 앞장서온 조선통신사

통신사를 만나는 일을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여긴 일본인들도 많았다. 통신사 일행이 묵는 숙소 주변은 통신사를 보거나 통신사와 소통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통신사의 기록인 사행록에는 필담창화(筆談唱和)로 잠을 설치거나 서예나 글, 한자를 받기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기록도 남아 있지만 당시 통신사가 일본에 남긴 시문, 그림 등의 작품이나 선물 중 일부는 현재 문화재가 되었고 일본의 화가들이 남긴 병풍이나 판화, 그림 등의 작품들도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통신사가 다녀간 뒤 일본은 한류로 들쭉거렸다. 통신사는 일본 내의 유행을 바꾸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대변혁의 시작점이자 고구마, 토마토, 구리, 접부채, 양산, 비루, 미농지 등을 조선으로 들여온 한일교류의 선봉장이었다. 에도에 도착한 통신사는 엄청난 환대와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고운 소금과 모래를 뿌려 길을 깨끗이 했고, 통신사가 지날 때는 모든 사람을 길가에 정지시키고 큰소리를 내지도 웃지도 못하게 했으며 손가락질도 금지하였다. 길일(吉日)을 정해 에도성에 들어간 통신사는 쇼군에게 국서와 예물을



조선통신사 역사관에 전시되었던 일본 시모카마가리지역에서 통신사에게 대접한 고치소 이치방

전했다. 쇼군은 국서와 예물을 살핀 뒤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었고 조선국왕에게 전하는 답신과 예물을 받은 통신사는 대마도주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봄날 같은 200여년 간의 한일 관계

통신사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의 모든 비용은 에도막부에서 지불했고 최고 100만냥(약600억엔)을 넘긴 적도 있었다. 동원된 사람의 수 만해도 34만명에 이를 정도로 통신사에 대한 관심과 환영은 엄청났으며 쇄국체제 아래 유일하게 문호를 개방한 조선과의 관계는 성신교린(誠信交隣)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막대한 비용과 인력동원의 저의는 쇼군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심을 쇼군에게 향하도록하기 위함이었겠지만 통신사가 오고간 200여년은 단 한차례의 침략도 없었던 평화의 시기였고 양국의 문화교류가 절정에 이르렀던 따뜻한 봄날이었다. 부산에서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일본



- ④ 부산 진성공원에 위치한 조선통신사 역사관
- ⑤ 조선통신사 역사관에 전시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지도



으로 향했던 통신사가 에도막부와 일본인들의 환대를 받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지녔던 마음이 자못 궁금해진다. 부산을 떠나던 순간과 부산으로 돌아온 순간의 마음은 분명 달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은 통신사 스스로에게도 대전환의 시작점이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한일관계의 겨울과 봄의 시작점은 언제나 부산이었다. 임진왜란도 조선통신사의 첫 항해도, 일제에 의한 첫 번째 강제 개항지도 부산이었고 한일 민간교류의 노력으로 이뤄낸 조선통신사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17년 10월 31일)의 첫 번째 시작점도 부산이었다.

한일 관계 회복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의 상징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민족에게 행했던 역사와 만행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야함이 마땅하나 민간에서라도 400여년전 성신과 교린의 정신으로 조선통신사가 그랬던 것처럼 한일간의 평화교류와 문화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인으로서의 숙명이자 미래한일관계의 지향점이다. 미래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역사의 대전환점에 부산을 거쳐간 조선통신사가 있었다. 🇰🇷🇯🇵

태초의 자연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하와이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태평양 한 가운데 자리한 하와이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힌다. 태평양에서 실 새 없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에 연중 온화하고 상쾌한 기후, 화산이 빚어낸 100여 개의 섬들이 선사하는 천혜의 자연 풍광, 와이키키로 대표되는 시티 라이프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천국과도 같은 여행지다. 와이키키 해변과 주도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는 하와이를 대표하는 섬이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하와이 인구의 80% 이상이 몰려 살 만큼 번화하다. 대형 쇼핑몰과 특급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이 몰려 있어서 시티 라이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서도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완벽한 휴양의 조건을 두루 갖춘 하와이로 황홀한 여름휴가를 떠나보자.

하와이 오아후 여행의 중심, 와이키키

이름만 들어도 낭만적인 와이키키는 하와이 오아후 여행의 중심이다. 길이가 3.2km에 달하는 와이키키 해변을 따라 특급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상점가가 끝없이 이어진다. 키 큰 야자수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바다는 색깔부터 다르다. 초록과 파랑의 중간쯤, 오묘한 물빛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파도에 몸을 실은 서퍼들의 경쾌한 움직임은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하다. 일부 구간은 제방을 쌓아 파도를 막은 덕에 어린 아이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와이키키 해변 동쪽 끝에 우뚝 솟은 산은 다이아몬드 헤드다. 와이키키 어디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와이키키의 랜드마크로 유명하다. 높이 230m의 사화산 분화구인 다이아몬드 헤드는 와이키키는 물론이고 호놀룰루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발아래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굽어보는 맛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1.1km 정도로 40분 정도 걸으면 된다. 와이키키 해변은 오아후 최고의 일몰 명소이기도 하다. 공기가 깨끗한 덕분인지 한국에서 보던 일몰보다 백배쯤 색깔이 진하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황홀한 노을쇼에 흠뻑 취한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쌓느라 여념이 없다.



1 2 와이키키 해변

72번 국도를 따라 비치 드라이브

와이키키를 출발해 동쪽 해안을 따라 뻗은 72번 국도는 오아후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흠뻑 취할 수 있어서 렌터카 여행자라면 무조건 달려갈 수밖에 없다. 라나이 록아웃과 블로우 홀, 샌디비치, 마카푸 포인트 등 오아후의 절경들이 72번 국도변에 줄줄이 늘어서 있어서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하나우마 베이다. 커다란 암초들이 파도와 해류를 막아 주는 덕분에 하와이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스노클링과 피크닉 장소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바닥이 흰회 보일 만큼 맑고 투명한 바다와 햇살 가득한 백사장. 그리고 푸른 산호초까지. 절경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우마 베이의 아름다움을



72번 국도



1 마카푸 포인트
2 샌디비치

제대로 즐기려면 스노클링에 도전해보자, 화려한 열대어와 산호들로 가득한 하와이의 바다 세계를 제대로 경험해볼 수 있다. 수중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15분 정도의 시청각 교육도 받아야 한다.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하와이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를 찾으면 된다.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생활을 보여주는 일종의 민속촌으로 하와이를 비롯해, 타히티, 사모아, 피지, 통가,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7개 섬마을을 재현했다. 각 마을을 돌면서 원주민들이 추는 훌라춤 등 오리지널 전통춤 공연을 보고 직접 배워볼 수 있다.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의 하이 라이트는 식사를 하면서 전통춤이나 공연을 즐기는 루아우 쇼다. 2시간 정도 저녁을 먹으면서 훌라를 비롯한 태평양 각지의 다양한 전통춤을 라이브로 볼 수 있다. 흔한 여행지의 뻔한 공연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다. 춤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빠져들 만큼 공연은 정열적이다.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근처의 노스쇼어 지역에선 푸드 트럭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새우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새우트럭'이 많은데 오아후의 별미로 통할 만큼 인기가 많다. 새우를 버터와 마늘로 튀기듯이 요리한 갈릭쉬림프는 서핑 후 출출한 배를 채우기에 더 없이 좋은 메뉴다.



3 4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시간이 멈춘 듯한 할레이바

하와이 오아후 섬의 서쪽지역인 할레이바는 서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들을 보여준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온 듯한 착각이 들 만큼 이색적인 분위기에 저절로 카메라를 들게 된다. 레트로 풍의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핫 플레이스다. '쿠아 아이나'의 햄버거는 할레이바로 가야할 또 하나의 이유다. 육즙이 흘러넘치는 쿠아아이나 햄버거를 먹고 나면 햄버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할레이바를 지나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광활한 파인애플 농장이 나타난다. 파인애플의 왕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돌이 1900년에 세운 첫 번째 파인애플 농장으로 파인애플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파인애플 테마파크다.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파인애플 열차를 타고 농장을 한 바퀴 둘러보는 투어도 인기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파인애플 아이스크림도 놓치지 말자.



5 할레이바
6 파인애플 농장

쇼핑 천국 하와이

한국보다 물가가 월등히 비싼 미국이지만 의외로 싼 품목들도 많다. 특히 옷이 그렇다. 한국에서도 살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옷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천국이 아닐 수 없다. 가장 규모가 큰 '와이키텔레 프리미엄 아울렛'은 폴로와 코치, 캘빈 클라인 등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미국 브랜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4개의 백화점이 모여 있는 '알라 모아나 센터'나 할인율이 최대 80%에 달하는 실속형 아울렛 'ROSS' 등도 인기다. 🛒



7 ROSS 아울렛
8 와이키텔레 프리미엄 아울렛



기세의 롯데,

프로야구 시즌을 더욱 즐겁게 할 영화들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도시트

기세! 이번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는 이 단어로 설명된다. 슈퍼스타도 없고, 최근 몇 년간 최하위 성적을 기록해오던 롯데 자이언츠의 올봄 성적은 마치 어떤 마법에 걸린 것만 같다. 봄을 지나 여름, 여전히 사직야구장의 열기는 뜨겁다. 어쩌면 가을에도 사직의 불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산 야구팬들의 설렘과 기대가 모인다. 롯데가 야구를 잘하면 부산 전체에 흥이 차오른다. 지금의 기세로 부산에 더 많은 신바람을 불어넣을 롯데 자이언츠의 선전을 기원하며, 부산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던 롯데와의 추억을 소환하는 야구 영화를 함께 보자.



사진 출처
 <1984 최동원> : (주)트리플픽쳐스
 <죽어도 자이언츠>, <퍼펙트게임> : 롯데엔터테인먼트



<1984 최동원>

개봉 2021. 11. 11.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대한민국

러닝타임 98분

기억하라, 1984

사직야구장을 방문하면 전광판 아래 좌우로 걸린 두 개의 숫자를 보게 된다. 파란 동그라미 속 빨간색 11, 빨간 동그라미 속 흰색 10이다. 롯데 자이언츠팀에서 영구결번된 번호로 11은 故 최동원 선수, 10은 작년에 은퇴한 이대호 선수의 등번호다. 최동원과 이대호를 빼면 롯데 야구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다. 먼저 부산 사람들의 못 말리는 야구 사랑의 신호탄이자 절정이었던 최동원 선수를 그린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1984 최동원>과 <퍼펙트게임>이다. 구덕야구장 시절을, 그리고 롯데의 첫 번째 우승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1984 최동원>을 보자.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1984년 가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과 최동원 선수의 투혼을 다시 불러내는 영화다. 객관적으로 분석된 전력에서 삼성은 롯데를 압도했고 모두가 전기 리그 1위였던 삼성의 우승을 예상하던 해였다. 그러나 후기리그 중 삼성의 저주기 게임은 롯데와 부산 팬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마침내 벌어진 한국시리즈에서 최동원은 총 7차전 경기 중 다섯 번 등판해 완투와 완봉으로 4승 1패의 기록을 세우며 롯데의 우승을 견인한다.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쓸 수 없는, 마법이자 기적의 순간이었다.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 무리한 출전이었음에도 최동원은 그의 별명처럼 무쇠팔로 불꽃 투혼을 보인다. <1984 최동원>은 당시 한국시리즈 주역들의 인터뷰와 중계 영상 자료, 그리고 현재 사직 야구장의 모습을 교차하며 전개된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선수와 스태프들이 전해주는 1984년 가을은 너무도 생생하고, 최동원의 역동적인 투구는 자료 화면으로 다시 보아도 에너지 넘친다. 구덕야구장 안팎을 에워싼 과거 팬들의 열기와 지금 사직야구장에 걸린 최동원의 등번호가 교차하며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다. 최동원 10주기에 맞춰 제작된 이 영화는 그를 추억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다.



자신과의 싸움

한편 <퍼펙트게임>은 1987년 최동원과 선동열의 맞대결을 그린 극영화다. 당시 최고의 투수 최동원은 어깨 부상으로 부진했고, 선동열은 해태의 천재 투수로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였다. 두 사람은 우정을 나누는 선후배이자 선의의 경쟁자고, 세상은 두 사람의 맞대결을 원했다. 1987년 5월 해태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두 사람은 선발 출전해 대결을 벌인다. 이 경기는 약 5시간 진행되었으며, 연장 15회까지 가는 대접전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기록적인 경기였다. 이날 최동원은 209개, 선동열은 232개의 공을 투구하며 완투한다. <퍼펙트게임>이 묘사하는 것은 선수 간의 경쟁과 대결 구도뿐 아니라, 선수 개인의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다. 두 선수가 더 이상 던질 수 없는 순간에 다다랐음에도 끝까지 공을 던지는 이유는 상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자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투지는 관객에게 큰 감동을 준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주인공만이 아니다. 한 번도 주전에 뽑히지 못한 무명의 선수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꾸준히 연습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배우 조승우와 양동근이 그 시절 최동원과 선동열을 재연해 열연을 펼치고, 마동석과 조진웅의 호연도 극의 재미를 더한다. 또 경기 외적으로 프로 야구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 스포츠 언론인 이야기 등 주변 이야기를 더해 당대의 상황을 묘사한다.



<퍼펙트게임>
 개봉 2011. 12. 21. 국가 대한민국
 등급 12세 관람가 러닝타임 127분
 장르 드라마



<죽어도 자이언츠>
 개봉 2022. 10. 27. 국가 대한민국
 등급 12세 관람가 러닝타임 108분
 장르 다큐멘터리

롯데와 함께한 40년

물론 롯데 자이언츠에게 영광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년간 우승을 못하는 프로구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날카로운 자막으로 시작되는 <죽어도 자이언츠>(2022)는 롯데의 영광과 치욕의 40년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1992년 우승 이후 30년이 넘도록 우승하지 못하는 팀, 심지어 리그 최하위라는 오명을 가장 많이 보유한 팀이 롯데다. 그런데 팬들은 이런 롯데를 비난하고 원망하면서도 왜 롯데를 떠나지 못하는가. 부산의 야구팬들은 왜 해마다 봄만 되면 다시 롯데를 응원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죽어도 자이언츠>다. 어릴 적부터 야구 시즌이 되면 항상 집에 롯데 경기 중계가 TV나 라디오에 틀어져 있었고, 항상 아버지는 욕을 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도 롯데의 팬이 되었다는 영화 속 어느 인터뷰이의 말이 우스우면서도 생생하다.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롯데의 팬이 된 것 같다. 전두환 정권의 프로야구 출범부터 40년간 팀에 몸담은 전현직 선수들, 사직야구장에 난무했던 욕설과 오물 투척, 우승과 꼴찌, 응원단장과 응원문화, 가족 팬과 외국인 팬 등 롯데를 둘러싼 애정과 애증이 영화를 감싼다. 지역 언론사 국제신문이 제작하고, 부산의 젊은 독립 영화 감독이 연출한 점도 의미가 있다. 롯데의 재도약, 아니 롯데의 진정한 성장을 바라는 염원이 담긴 영화다.

스포츠 정신을 담은 영화들

마지막으로 특정 구단의 팬이 아니더라도 프로야구 시즌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야구 소재 영화도 함께 소개한다. 스포츠 영화는 승패를 떠나 역경을 딛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그래서 스포츠 영화는 필연적으로 성장영화에 가깝다. 한계를 마주한 인물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일깨우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야구소녀>, <낮아아웃>, <글러브>는 야구를 향한 열정과 현실의 한계를 중심 사건으로 설정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야구소녀>는 여자라는 이유로 프로팀 입단 평가 기회도 얻지 못하는 고교생이 꿈을 찾아 가는 내용이다. <낮아아웃>은 신인 드래프트에 실패한 고교 졸업반 야구 선수가 계속 야구를 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그리고 <글러브>는 음주 폭력으로 징계에 회부된 프로야구 스타 선수가 청각 장애인 야구부를 찾아가 임시 코치직을 맡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들은 성별이나 빈부 격차를 떠나 실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 정정당당한 대결로 얻어내는 1승의 값진 의미 등을 주제로 한다. 다양한 영화와 함께 프로야구 시즌을 다채롭게 즐겨보자. 📺



여름밤, 별의 의미

글_ 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여름밤엔 산책이 제격이다. 낮엔 사라졌던 바람도 어디선가 불어온다. 불행과의 명암 때문에 행복이 감지되듯, 낮과의 극적인 대비 때문에 여름밤은 더 시원할 수밖에 없다. 계절 중 가장 시원한 순간은 7월의 여름밤이다.

문득 불어온 바람결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한다. 별이 보인다. 낮설다. 항상 그곳에 있었던 별을 이제야 마주한다. 나이 들어 바라보는 별은 반짝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별은 사라진 것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한때 반짝였던 우리의 청춘과, 그 청춘 때문에 무작정 아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청춘의 우리는 그 별처럼 뜬금없이 그곳에서 빛났고, 그 빛 때문에 길을 잃기도 했었다.

가끔 유성을 만날 때도 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혹은 없는 복근이라도 키울까 해서 공원 윗몸일으키기 기구에 드러누웠는데, 하려던 운동은 포기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별이 떨어진다.

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애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여행스케치 <별이 진다네>)

이 가사대로라면 별이 떨어지고 가슴이 무너지겠지만, 이미 충분히 방어기제를 키워오고 상처 받지 않는 법을 익힌 우리에게 가슴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옛사랑을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그 옛사랑이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잘 적응해 왔다. 그리고, 이 적응이 7월의 여름밤에는 조금 아쉽다. 가슴이 무너졌던 순간이 그립고, 옛사랑을 그리워하던 고통스런 시간들이 그립다.

유성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 수 있는 나이는 얼마나 찬란한가. 우리는 '소원'이라는 걸 잊었다. 소원이 아니라 목표만 쫓아왔다. 한 목표에 다다르면 곧바로 다음 목표점을 찍었다. 밥벌이 혹은 돈 때문이었다. 피로와 병도 얻었다. 돈의 원인이 돈 버는 수단인 과로라서 병을 치료하지도 못했다.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선 만족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숫자와 보고서와 자본주의 웃음을 장착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간절해진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인지도 모른다.

캠핑족이 많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캠핑은 하늘과 바람과 별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게 한다. 게다가 "이상하게 취하지 않는다" 추억거리며 술잔을 나누게 된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술잔은 더 빨리 비워진다.

별을 보며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단지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별에 취하는 것이 두려워서 별에 취하기 전에 차라리 술에 취하는 것이다. 별에 취하고 나면 그 이전의 현실로 돌아가기 어렵다. 별에 취한 자는 현실에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떤 아름다움은 그것을 알기 전과 안 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우리 생이 완전히 재편되듯이.

7월 밤은 설렌다. 바깥의 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열기가 걷힌 후 시작되는 저녁의 선선함 때문이다. 저녁 모임도 실내가 아니라 실외 노상에서 하고 싶다. 만약 누군가와 노상 술자리를 갖는다면, 그는 분명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좋은 노래는 종종 '위험한 노래'고, 좋은 사람 또한 종종 '위험한 사람'이다. 좋은 노래와 좋은 사람은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삶의 루틴을 깨트리기에 좋은 노래와 좋은 사람은 위험하다.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노래를 오히려 꺼리는 이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욕망을 알게 될까 하늘을 보지 않았고 별에 취하지도 않았다.

7월 여름밤에는 잠시 위험해져도 된다. 한시적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캠핑이 아니라면 노상주점에서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다네>를 읊조리면서, 소주에 돼지고기도 구우면서, 그 소주잔에 별이 떨어지는 착각도 자발적으로 하면서. ✦



Story of 캡틴장

START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부산상공회의소-동아대학교 업무협약식(2023.5.24.)

부산상공회의소 - 동아대학교 업무협약식
2023. 5. 24.(수) 부산상공회의소 동아대학교

이번 협약이 지역의 유망한 인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WADA 회장 부산 방문 초청 만찬 간담회(2023.6.2.)

Welcome dinner for the President Witold Banka
of the World Anti-Doping Agency
Date | 2023. Jun. 2.(Fri) Venue | Paradise Hotel Busan

2025 WADA 총회 때 부산에서 다시 만납시다!

올집 아카이브4H 부산 오픈식(2023.6.8.)

올집 아카이브가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도한다지요??

태평양 도서국 정상 초청 환영오찬(2023.5.30.)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느끼셨지요?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의원부 친선 골프대회(2023.6.1.)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의원부 친선 골프대회
2023. 6. 1.(목) KSI&BICC

오늘 행사를 통해 쌓인 피로도 풀고 의원부 간에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12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2023.6.9.)

최회장님 오늘 회의가 앞으로의 한·일간 적극적인
경제 협력의 시발점이 되겠지요??

지역 언론사 인터뷰(2023.6.8.)

부산은 리야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해양도시라는 점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쿠바상공회의소 회장 부산방문 초청 오찬 간담회(2023.6.2.)

the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June 2, 2023 Busan, R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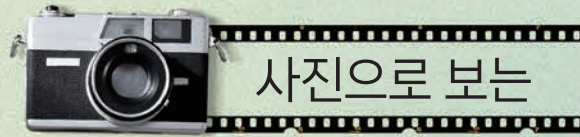
2030부산월드엑스포 적극 지지 약속하신 겁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2023.6.16.)

산업은행 부산 이전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 모아보입시다!

123





부산상공회의소 2023년 상반기



부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1. 2.)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1. 16.)



2030부산월드엑스포 커피 에디션 퍼스트 테이스팅(2. 16.)



부산 경제계 신기업가정신 선포식(2. 22.)



한덕수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3. 21.)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3. 7.)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3. 17.)



BIE 실무단 환송 만찬(4. 6.)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초청 제25차 부산경제포럼(4. 12.)



부산 윈스톱 기업지원센터 개소식(5. 23.)



제12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6. 9.)



제172차 BIE 총회 참석 및 르노그룹 본사 방문(6. 17.~23.)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나아가는 부산 대표 중견기업

SUNBO



선보패밀리는 세계 1위 선박용 모듈 유닛 전문기업 선보공업과 선보하이텍, 선보피스를 비롯하여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있는 선보유니텍 그리고 전통 제조업과 융합을 바탕으로 B2B 기반 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이다.



선보공업의 The world 1st FGSS(MEGI)

조선 기자재 모듈 UNIT 1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진출
선보패밀리는 1986년에 설립된 선보공업을 필두로 선보유니텍, 선보하이텍, 선보피스, 선보엔젤파트너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등 6개 법인 계열사에 현재 약 700여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선보공업은 국내 최대 조선중 최대 척수의 납품실적과 함께 조선업계에 모듈 UNIT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기업으로 국내 주요 대형조선소를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다. 특히 Oil Unit, Tank Top Unit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연간 1,000여개 패키지를 국내외로 납품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차세대 선박용 기자재 개발에 매진하여 대기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LNG 연료 추진시스템(FGSS), 해양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Water Treatment System, PRS(가스재액화시스템), LNG COMPRESSOR(가스압출시스템), LNG개조기술 등 신성장 동력 개발 및 공급에 주력함으로써 LNG E.P.C.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 ① 선보공업의 Test Facility(LN2 Tanks)
- ② 선보공업의 Test Facility(Control Room)



**친환경·에너지 분야 및 ESG 사업을 통해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앞장서 나가는 기업**

선보패밀리에서 친환경·에너지 신사업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보유니텍은 국내 최초로 300kW급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를 올해 3월 성공적으로 납품하였다. 수전해 설비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고순도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수전해 기술로 생산되는 그린수소는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아 미래형 친환경 수소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는 관련 기술이 상용화 단계지만, 국내에서는 선보유니텍과 엘캠텍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선보유니텍은 엘캠텍과 협업해 PEM 수전해 설비 개발 및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결과 이번에 개발한 300kW 수전해 설비의 완성도는 국내외 최고 수준까지 도달하였다고 한다. 선보유니텍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에 50kW급 수전해 설비 납품을 시작으로 올해 300kW, 내년에는 1MW, 2MW급 설비까지 수주를 완료하기도 하였다. 선보유니텍의 친환경 사업 분야 외에도 선보공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이슈중 하나인 ESG 실천에도 앞장서 나가며, HD현대중공업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ESG우수협력사’에 최고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선보공업은 에너지 소비량을 원 단위로 환산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경영방침 제정 및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분과 중소기업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체계 수립과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접근 자율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한다.



①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이사
② 선보유니텍 김청욱 대표이사
③ 선보유니텍 신사업 두산수전해 시설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선보패밀리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아이템이나 기술을 지원하여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가능성을 크지만 투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과 투자를 해오고 있다. 두 회사는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기술은 있지만 산업의 도메인을 찾지 못하는 스타트업, 또 스케일업 역량은 뛰어나지만 원천기술에 목마른 기업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과 기술, 투자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미래 신사업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근로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근로자 친화 기업문화

선보패밀리는 임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배움에 대한 직원들의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임직원들의 진학을 지원함으로써 ‘선취업 후학업 기반구축’을 실천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 최초로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상인 ‘가족사랑대상’을 수상하며 가족친화적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선보패밀리는



GREEN&OFFSHORE KOREA 2022 전시회

다양한 복지 제도로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아난티코브, 파라스파라 리조트, 골프리조트 등 휴양 시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고, 사회초년생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생애 첫 주택마련 축하금 500만원, 사내대출 3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복지수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여 헬스나 골프이용권, 학원수강, 각종 취미생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본인 및 배우자생일, 입사기념일에 기념선물과 함께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및 각종 자격시험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요즘 저출산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축하금 등도 지급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최금식 회장

선보패밀리 최금식 회장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조선기자재조합이사장, 부산 사랑의 열매 회장, 부산일보CEO 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을 맡아 기업경영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경영을 통해 이룬 성과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공헌에 앞장서 온 것에 힘입어 2019년 제12회 대한민국 해양대상, 2021년 제22회 부산MBC 부산문화대상 해양 부문, 2022년 제13회 동명대상, 2023년 제5회 부산불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금식 회장은 “평소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는 만큼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지역인재를 발굴해 사업보국을 통해 산업의 재목으로 키움으로써

인재 유출을 막아 지역발전에 더욱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T'S GO 2025 비전과 함께 친환경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인력의 확충, 신설공장 설립, 가스저장설비 증설 등 신성장 사업준비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기업, 인재가 곧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보패밀리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



④ 제13회 동명대상을 수상하는 최금식 회장
⑤ 제5회 부산불교대상을 수상하는 최금식 회장



선보공업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수여식



2022년 청년창업사관학교 10주년 IR 왕중왕전에서 발표하고 있는 서광훈 대표 발표

“We innovate the industry” 기술로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 (주)토즈(Toads Co.,Ltd)



(주)토즈 서광훈 대표

(주)토즈는 Next reality와 Engineering 기술을 통해 글로벌 조선해양 및 해운 산업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선박의 설계와 건조 단계에서는 선박 설계 품질검증 시뮬레이터인 “Toads Marine”을 선박의 운항과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XR기반 실시간 원격 고장 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 솔루션인 “Toads S-Link”를 통해 선박의 설계에서부터 건조, 운항, 유지보수에 이르는 선박의 Life Cycle별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글로벌 조선해양 솔루션 전문 기업을 꿈꾸는 토즈는 세계 물류의 핵심축인 조선해양 및 해운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1 서광훈 대표가 부산 Data Week 2022년에서 발표하는 모습
2 Fly Asia 참가에 참가하여 박형준 부산시장 앞에서 설명하고있는 서광훈 대표
3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명판

두꺼비와 같은 포식자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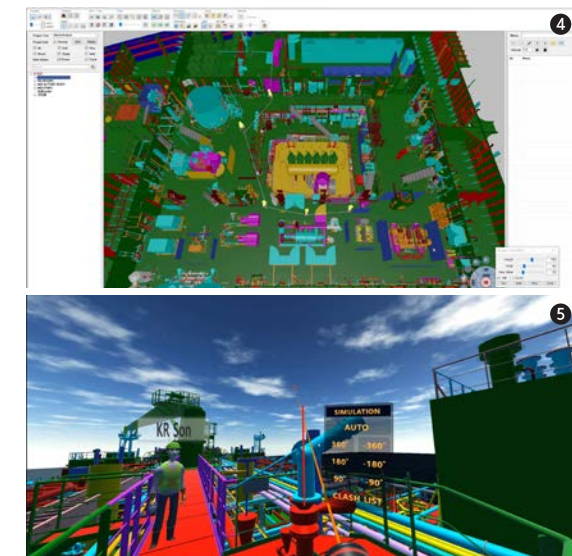
회사명인 토즈(Toads)는 두꺼비들이란 뜻이다. 두꺼비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이지만 개구리와 달리 엉금엉금 기어 다녀 물이 없어도 오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맹독을 가진 생태계의 포식자이기도 하다. 두꺼비의 근성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특성상 초기부터 가파른 성장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지만 성장을 시작하면 목표시장에서 포식자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회사명을 두꺼비(Toads)로 정했다. 또한 두꺼비는 영어의 슬랭으로 “멍청이”란 뜻도 있는데 창업 당시 멤버 모두 유명 조선소와 IT 기업의 차부장 이상 출신 40대 세명이 모여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내겠다고 똘치던 멍청이들이란 뜻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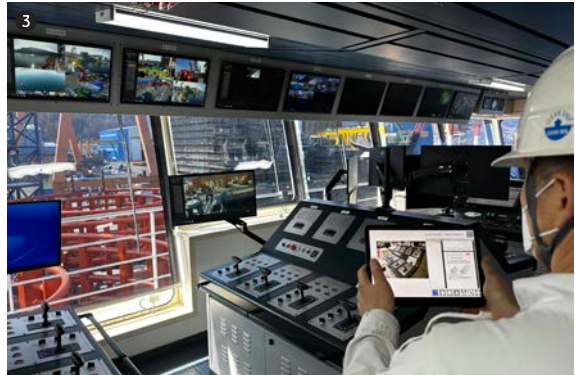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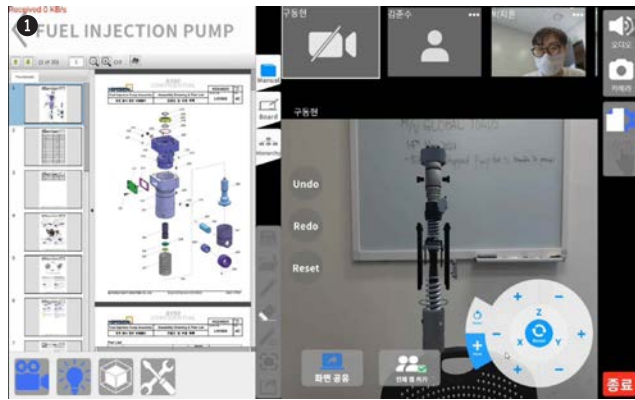
조선해양 Metaverse 설계 품질 검증 솔루션 “Toads Marine”

대한민국은 조선업 강국이며 설계 기술력, 생산 기술력, 품질 등에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선 강국이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 생산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 내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한 선박의 시리즈(보통 선박을 수주할 때에는 2+2, 4+2 등 시리즈로 수주 하는데 이는 수익성 때문이다) 초기 선박의 경우 견적 원가보다 건조 원가가 더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설계 변경, 생산 학습 효과 등의 여러 요인이 있으며 초기 선박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재작업, 작업대기 등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의 경우에 한국의 대형 조선사는 건조원가 대비 약 3%, 중형

조선사는 약 5%가 발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에서는 무려 평균 24% 가량 발생하고 있다. “Toads Marine”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양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설계 품질을 검증함으로써 인해 건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을 예방하고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토즈 마린은 PC버전, Mobile버전, VR버전을 동시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Virtual Twin 상에서 기존 설계자 뿐 아니라 생산 관리자, 품질관리자, 선주감독관, 선급검사관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설계 품질을 검증함으로써 인해 설계 변경뿐 아니라 실제 건조 단계에서의 작업성 및 안정성 또한 향상 시킨다.

4 Toads Marine_패시지체크
5 Toads Marine_VR 협업





XR기반 원격 실시간 선박 고장 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 솔루션 “Toads S-Link”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선박의 경우 육상과 달리 통신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세대 해상위성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환경이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육상과 같은 빠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협업툴로는 해상의 열악한 통신환경으로 인해 실시간 지원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토즈에스링크(Toads S-Link)는 이와 같은 열악한 통신환경에서도 원격으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육상의 전문 엔지니어가 선박의 고장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AR 기능이 포함된 3D 매뉴얼을 통해 선내의 엔지니어(기관사)가 자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원격에서 실시간 지원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Pre-inspection, 비상상황에서의 실시간 대응, 육해상 공동 훈련 등 선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현장과의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

토즈마린(Toads Marine)의 경우 주식회사 케이조선과 MOU체결 후 약 2년에 걸친 현장 실증을 통해 제품의 성능 고도화를 완료 하였으며 토즈에스링크(Toads S-Link)의 경우 STX마린서비스(주)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 여러 선박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실제 기업에서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고도화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최고의 제품이 되고자 한다.

2020년 STX조선해양(현 케이조선) 기술협력 MOU 체결식



1 Toads S-Link 시연 사진
2 3 Toads S-Link 실증 사진



가상현실기반 선박설계 사전 검사 시스템 등록증 특허증



가상현실 기반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증



고고도 위성통신을 통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시스템 특허증



모델학습을 통한 선박 설계 오류 예측 시스템 특허증



선박 설계 구조물 간섭 오류 검증 시스템 특허증



선박의 원격 유지보수를 위한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 특허증



표준선 비교 분석 시스템 특허증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토즈는 2019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만 4년 4개월 동안 총 7개의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그 중 5건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6개월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부 특허의 경우 불과 2.5개월 만에 등록되기도 할 정도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 받고 있다, 또한 토즈는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일본, 그리스, 터키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2019년 세계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인 핀란드의 Slush와 2022년 APEC Seafarers Excellence Network Conference, 2023 Nor-Shipping에 참가하였으며 중국의 대형 국영 조선소인 Dalian Shipbuilding Industry, 노르웨이의 글로벌 선박 관리 기업인 OSM, 영국의 글로벌 선사인 Stolt-Nielsen, 일본의 MOL, 덴마크의 Maersk 등과 당사의 솔루션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터키의 Beşiktaş shipyard 등과도 활발히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We innovate the industry

토즈는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해운산업의 미래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야드, 스마트쉽 등 조선해양과 해운 산업에서 (주)토즈의 상징인 두꺼비처럼 최상위 포식자로서 산업을 혁신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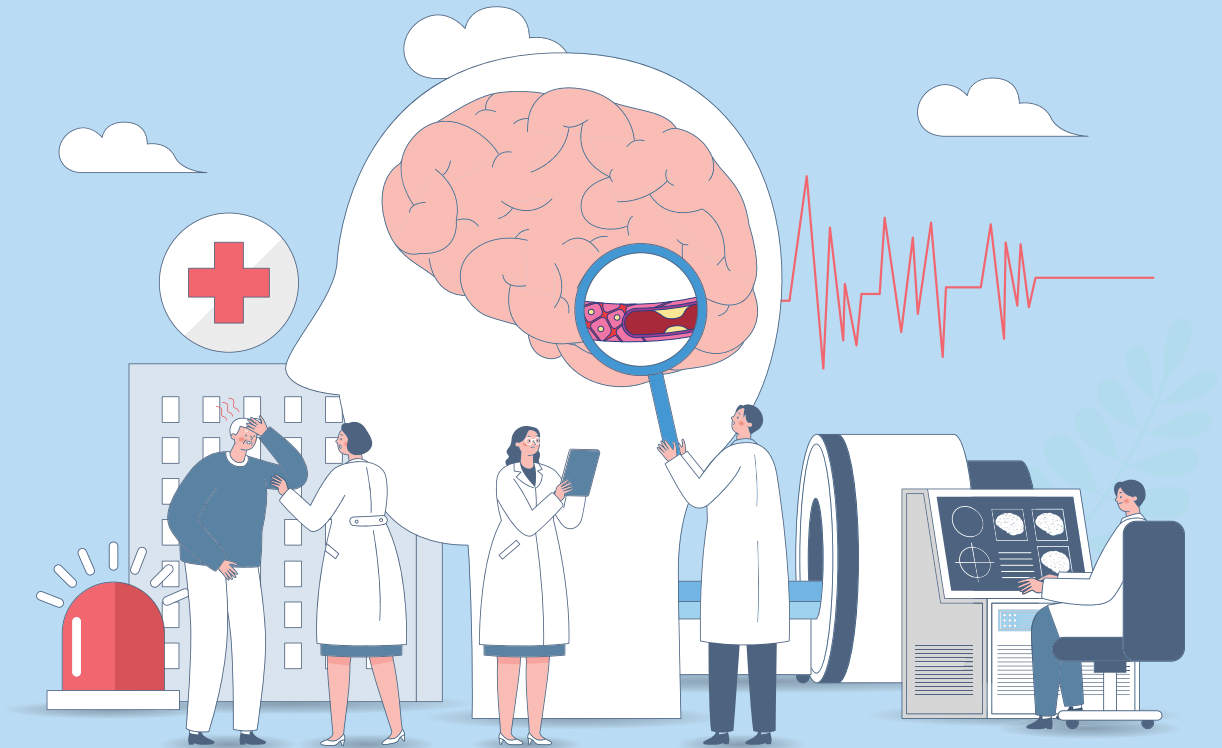


4 2023년 노르웨이 Nor-Shipping 참가
5 2023년 중국대련조선중공유한공사 토즈마린 제품 미팅
6 2023년 일본 MOL 미팅(in 싱가포르)



여름철 더욱 조심해야 할 뇌질환 ‘뇌졸중’ 바로 알기

글_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



뇌졸중? 뇌졸중?

뇌졸중은 암, 심근경색과 함께 3대 사망원인으로 알려진 위험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병명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병명은 뇌졸중(腦卒中)이며 ‘뇌가 갑자기 무언가에 맞았다’라는 뜻이다. 흔히 과거 중풍이라 불린 뇌졸중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뇌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는 질병이다. 세부적으로는 혈전 또는 플라크로 인해 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이라 부르며, 뇌로 가는 혈관이 터져 혈액이 유출되는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이라 분류한다. 이름과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과 높은 사망률로 인해 초기 발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 뇌졸중은 뇌가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뇌의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혈관이 어디인지, 손상된 혈관 부분에 따라 초기 증상 및 나타나는 신체부위가 달라지는데 뇌졸중의 주요 초기증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초기 증상이 발현되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 말한다.

뇌졸중 초기증상



심한두통,
메스꺼움, 구토



한쪽 팔 또는
다리의 힘 빠짐



안면 마비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및 복시



어눌해지는 발음



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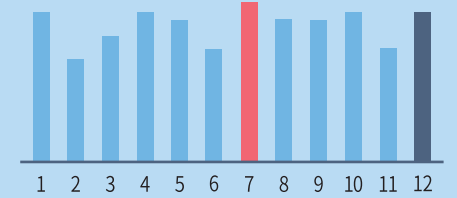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병원으로

뇌졸중은 재발이 잦고, 신체마비, 언어장애, 치매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에 평소 전조 증상을 반드시 기억해두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119신고 혹은 병원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뇌졸중은 특히나 겨울에 주의해야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추운 날씨에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되는데, 이 과정 중 혈압이 상승하여 뇌혈관에 압력을 받아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평원의 조사 결과 최근 2021년의 경우 여름과 여름 직후인 7~10월의 뇌졸중 환자 수는 겨울인 1~2, 11~12월인 겨울보다 1만 여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불어 2017, 2019년 또한 겨울보다 여름의 뇌졸중 환자 수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졸중은 더 이상 겨울에만 조심해야 될 질병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름은 어떠한 이유로 뇌졸중 환자가 늘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더운 날씨에 체내 혈관 팽창으로 혈류속도가 느려지고 뇌세포에 혈액 공급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무더위에 따른 체수분 감소로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고 혈전이 발생하게 됨에 따른 뇌졸중 발생 위험이다. 간혹 뇌졸중의 증상을 여름철 일사병 증상으로 착각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름철 뇌졸중 발병 원인을 잘 인지하여 앞서 말한 의심 증상이 나타날 시 곧장 병원을 방문하여야 한다.

월별 뇌졸중 환자 추이



뇌졸중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한 여름인 7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1°C 상승 시

뇌졸중 환자 약 8% ↑
사망률 약 2.1%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습관 개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여름철 뇌졸중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철 발생하는 뇌졸중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 ✓ 여름철 적정 체온, 실내 온도를 유지(실내외 10도 이내 차이 유지)
- ✓ 찬물 샤워, 냉탕 목욕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 ✓ 기온이 높을 때 야외에서의 격렬한 운동 자제
- ✓ 주기적인 수분 섭취
- ✓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수

고혈압·당뇨 환자는 더 큰 주의 필요

더불어 뇌졸중의 고위험군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과체중, 흡연자이다. 특히나 뇌졸중 환자의 약 80%가 고혈압을 진단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기에 고혈압을 비롯한 당뇨 등의 생활습관병을 평소 생활에서 자기이해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스스로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짜고 기름진 음식 자제, 주 2-3회 이상의 꾸준한 운동, 금연 및 음주 관리 등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국가검진을 통하여 무더운 여름!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대한뇌졸중학회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경제 트렌드

로코노미

Local+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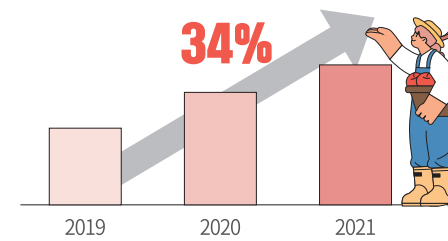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언제 회복될지 가능할 수 없었던 상황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 국내 각 지역에서 생겨나는 지역상권 트렌드, '로코노미'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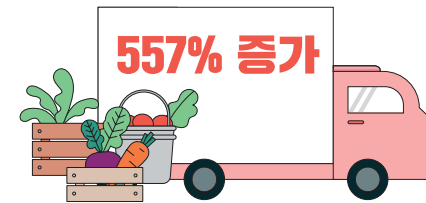
1 지역(Local)+경제(Economy)

'로코노미'는 생소한 단어지만 알고 보면 무척이나 직관적인 단어다. '지역(Local)+경제(Economy)'의 조합으로 말 그대로 지역을 기반으로 희소성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 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지역의 숨은 가치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 로컬 컨셉 숨 이용 변화 |



| 산지 직송 플랫폼 이용 추이 |



2019년 대비 2021년 기준 / 참고자료: 신한은행

3 농칠 수 있지, 기업들의 로코노미 사례

기업들 역시 이러한 현상을 놓치지 않고 지역 특색을 담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향토 기업인 대선주조와 부산 돼지국밥라면의 콜라보 밀키트, 블루스트리트의 부산명물 물떡탕 밀키트, 스타벅스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료와 지역 특색을 살린 매장, 맥도날드의 지역 양돈 농가와 함께하는 햄버거, 이마트 24의 지역 명물 아이스크림, CU의 전국 지역 중소 양조장과 협업을 통한 지역 맥주 등 수많은 '로코노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밭'이 개발하고 판매하는 '춘천 감자빵'은 연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대형 백화점에서 지역 특색이 담긴 제품의 팝업스토어가 열리기도 할 정도로 '로코노미'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규모는 작지만 참신한 콘텐츠와 세련된 감각이 돋보여서 매력적이다.

2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

지역경제의 새로운 트렌드인 '로코노미'가 등장한 이유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 1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되고 인구가 많은 도심보다 가까운 동네 및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 2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은 국내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국내의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가치가 담긴 제품과 서비스들을 새롭게 생산하고 제공하기 시작했다.
- 3 소비자들이 지역의 특색이 담긴 이색적인 장소나 제품, 서비스 등이 트렌디하다고 느끼고 만족함으로써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로코노미 제품을 왜 살까?

'로코노미' 제품은 지역 특산물로 만든 먹거리가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이라는 생각과 함께 여행을 하며 쌓은 추억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과 만나 시너지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하며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미지와 추억을 구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생소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일수록 소비자들에게는 *힙(Hip)하다고 느껴져 더욱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엔데믹이 선언되었어도 멈추지 않는 '로코노미', 이번 여름은 자신의 지역에서 특색있는 제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지 못한 즐거움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

*힙(Hip)하다: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

Big

글_ 정필영 변화경영연구원 IMI 원장·경영컨설턴트



주요경력

- 현)변화경영연구원 IMI 원장
- 전)한양대학교 교수
- 현)전문경영컨설턴트 / Master coach
- 현)삼성경제연구소(SERI) 추천교수
- 현)중소기업진흥공단(SBC) 전문지도위원
- 현)한국생산성본부(KPC) 외래교수
- 현)한국표준협회(KSA) 수석전문위원

Change 시대

1988년 7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해 유전에서는 167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석유시추선 화재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앤디모찬(Andy Mochan)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실에 연기가 가득해서 급히 갑판에 올라가 보니 시추선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둘러보니 보이는 곳은 온통 불바다였죠. 급박했던 그 순간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뛰어든 것인가? 저는 화염과 연쇄 폭발로 더는 지탱할 수 없는 시추선을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던 제가 해염을 치려고 손을 내저을 때마다 불이 갈라지며 길을 내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때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시추선을 과감하게 버리고, 생존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경영자들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자들을 위해 네 가지 전략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성공 기업의

경영전략

첫째,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공급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경험했던 ‘공급망 마비사태’는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로컬 생산, 협력사 다양화, 재고 관리의 최적화 등을 통해 JIT(Just in time)시스템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 중심의 경험과 서비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마케팅리서치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내외 소비자들의 행동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와 선호도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화와 원격근무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원격근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구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기업의 경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하여 기업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 사회적 문제 해결, 다양성과 포용 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인류의 역사가 기존의 BC와 AD가 아닌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이후(After Corona)로 나뉘어 다시 쓰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였고, 작년 하반기에는 학자들조차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반세계화와 온소어링, 리쇼어링 현상이 계속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시스템 등이 사회구조를 상당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기업들은 디지털화와 원격근무의 확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공급망, 고객 중심의 경험과 서비스 혁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미래를 향한 더욱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애플 비전 프로

그림 망카우씨
mangcowc@gmail.com

애플이 신제품 비전 프로를 발표했다던데 그게 뭐야?

혼합현실을 만들어내는 MR헤드셋이야

앵? 생긴 건 스키고글이던데...

현실에 가상 물체를 3D로 입혀서 끼는 순간 신세계가 열린대야~

다됐다~
영화에서만 보던게 실제로 된다고?
하모~

이야~ 다른 건 뭐 더 할 수 있는게 없어?

가상 컴퓨터 화면을 띄우고 손으로 움직이면서 작업도 된다는구만~

사진은 기본이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TV가 없어도 되겠더라고~

오마야

헤드셋 하나로 컴퓨터, TV는 물론이고 회의도 할 수 있다니!!!

삼성이랑 메타도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니 앞으로 MR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꺼야!

애플 Vision-Pro 출시와 MR(혼합현실) 기술



글로벌 기업 애플이 지난 6월 5일(현지시간) 애플 세계개발자 회의(WWDC)에서 MR(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Pro)’를 공개하였습니다. 애플은 스키 고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비전프로를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표현하며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였습니다. 애플의 비전프로와 함께 MR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컴퓨팅의 시대

애플이 2014년 애플워치 출시 이후 9년 만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비전 프로’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합쳐놓은 MR(Mixed Reality, 혼합현실) 기반의 제품으로 MR은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 물체를 겹친 AR(증강현실)을 활용해 현실과 가상 세계 간의 상호 작용을 돕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VR(가상현실) 장치는 게임을 할 때 주로 사용하며, 가상 세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공간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영화에서 허공에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작업했던 것처럼 현실과 가상 객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디지털 콘텐츠와 물리적인 세계를 결합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현실세계와 다른 사용자와의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능 선보인 비전 프로

비전프로는 전용 운영체제인 ‘비전OS’와 자체 앱스토어를 갖췄으며 기존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센서를 갖춰 이용자가 눈과 손, 음성을 통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스타임, 화상회의, 웹 검색, 원격 근무 등을 지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프로그램과 어도비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하며, 다른 이용자와 함께 콘텐츠를 감상하고 업무를 위해 협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는 2개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갖추어 영화를 보는 경우 화면을

30m(100피트)넓이로 확장해 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춘 개인 영화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애플 이머시브 비디오(Apple Immersive Video)를 통해 180도 고해상도 영상 재생도 할 수 있으며 몰입형 동영상 기능도 제공됩니다. 비전 프로의 정식 출시는 2024년 초로 예정되고 가격은 3,499달러에 판매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 메타 등 경쟁업체들도 새로운 기기 출시

애플보다 앞서 VR·AR 헤드셋 시장에 뛰어든 메타는 애플이 내세운 ‘공간 컴퓨팅’과 달리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개인 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메타는 올가을 ‘메타 퀘스트3’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으로 저커버그 CEO는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 하였습니다. 퀘스트3는 전작 대비 40%가량 얇고 헤드셋 바깥의 모습도 일부 볼 수 있는 혼합현실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2020년 출시된 퀘스트2 대비 200달러가량 비싸진 499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도 퀄컴·구글과 협력하여 메타버스 헤드셋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샘모바일 등 외산은 삼성이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중인 확장현실(XR) 기기가 올해 말 전에 출시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글래스’라는 국내 상표 출원에 이어 MX사업부에 XR 전담 연구개발 조직도 꾸린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MR, XR 기기 시장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신냉전시대에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뿌리부터 알면
진짜 실속 있는 흥미진진
한국경제의 역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

김정인 | 휴머니스트 | 25,500원

2000년대 말 많고 탈 많은 성남시 개발을 이해하려면 1971년 8·10성남민권운동부터 살펴보아야 성남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개발 이슈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 비정규직, 깃워커 등 2023년 현재 우리를 둘러싼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짚으려면 1997년 대기업 연쇄 부도와 외환위기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왜 아버지가 '주식 하면 삼대가 망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다면 1962년 증권과동의 현장으로 가보아야 한다. 1980년대 3저 호황과 2000년대 한미 FTA를 통과하면 유가와 환율이 맥살 잡고 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 뒤에는 역사가 있다.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이 내린 '어제'의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이 되었으며, 우리의 '오늘'은 어떤 모습의 '내일'로 찾아올지 예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경제사는 한 번쯤 펼쳐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건들을 비교하고 연결하며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고 예측하게 한다.



한국 반도체 슈퍼 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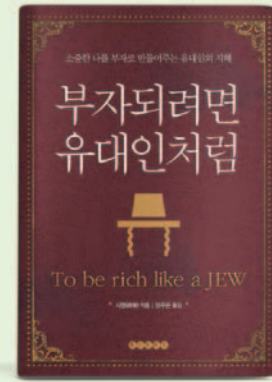
전병서 | 경향BP | 23,000원

지금 세계 반도체 전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국익만 있다. 기술이 있으면 대접받고 없으면 버려진다. 미·중의 전쟁에서 한국이 발언권이 있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미·중이 절절히 원하지만 갖지 못한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이아몬드알을 낳는 거위로 키워야 미·중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기술 개발에서 처지는 순간 경쟁력을 잃게 된다. 반도체 산업이 지는 순간 한국도 지게 된다. 반도체는 한국을 지키는 최종병기다. 한국은 미 중의 반도체 전쟁에서 '슈퍼 을(乙)의 갈로 가야 한다. 한국이 메모리에서 세계 제패를 이루면 미·중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슈퍼 을의 길로 갈 수 있다. 미·중의 반도체 기술 쟁탈전 속에서 한국이 살길은 '대체불가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메모리 제패에 목숨 걸고, 파운드리에는 KSMC로 승부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11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읽기 위해
손에 들어야 할 단 한 권의 책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유대인의 지혜



29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돈의 역사



칩워,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

크리스 밀러 | 부키 | 28,000원

오늘날 세계 80억 인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가전기기부터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국가 안보, 산업과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칩, 반도체다. 석유를 빼놓고 20세기를 이해할 수 없듯, 반도체를 빼고 21세기를 조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크리스 밀러의 《칩 워》는 반도체 산업의 태동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대결, 한국과 대만, 일본, 실리콘밸리의 치열한 기술 경쟁과 미래 전략까지, 반도체의 70년 역사를 담아낸 기념비적 논픽션 역사서다. 반도체는 디지털 기술의 근간을 이루지만, 그 칩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나노미터 단위의 기술력과 장비를 갖추려면 장기간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칩 워》는 효율과 집중을 추구한 결과 반도체 공급망이 동아시아에 자리 잡는 과정과 산업의 선구자들을 추적한다.

부자 되려면 유대인처럼

시몽 페레스 | 태인문화사 | 20,000원

이 책은 부를 쌓는 법을 유대인의 '지혜'에서 찾아 10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설명한다. 언제나 돈의 정점에 서있는 유대인 부자들의 통찰력과 이야기, 장사 경영 계약 이행 원가 통제 마케팅 숫자 게임 모험 재테크 협상 관리 등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알려준다. 돈이 최고인 세상. 빠르게 많은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서점에 많이 있지만 돈을 제대로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찾기 쉽지 않다. 유대인 부자들의 광범위한 연구 및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책은 돈을 튼실하게 버는 지혜를 들려준다. 즉, 유대인 부자들의 성공에 기여한 문화적, 역사적 및 실제적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유대인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 또 '부지런하고 남을 잘 돕는다.' 등의 돈 버는 지혜는 유대인이 오랜 실천 끝에 얻은 결론으로 성공을 거머쥐게 하는 무기이다.

하룻밤에 다 읽는 경제 에스프레소 금융

김종승 | 한빛비즈 | 18,000원

최근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한 전세 사기 사건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생존까지 위협받는 시대다. 금융 문맹, 금융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해진 이유다. 금융 공부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한다. 금융 특유의 불친절한 용어와 작동 원리 때문에 어렵고 재미없고 딱딱해서 공부를 중도 포기한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도 좋은 책이 나왔다. 이 책은 흥미로운 '돈' 이야기로 금융의 핵심 키워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은행법과 증권법, 금융소비자학 등을 가르치는 교수가 29개의 금융 핵심 키워드를 '돈'의 역사로 풀어내 읽다 보면 어렵기만 했던 금융 개념이 쉽게(심지어 재밌게!) 이해되는 놀라운 경험을 선물할 것이다. 🏦

Busan Economic News

2023 07 July

(주)화인베스틸

초고압 가스설비 전문기업 넥서스가스(주) 인수

철강에서 수소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주)화인베스틸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플랜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수소 등 초고압 가스설비 시공 실적이 있는 넥서스가스(주)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6월 7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주)화인베스틸은 신사업 발굴과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추가 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 화인그룹의 장인화 회장은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화인그룹 사업 구조 혁신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추가적인 신사업 발굴을



통해 수소에너지 분야 진출과 디지털 전환(DX) 사업 구조 혁신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신사업 마스터플랜에 맞춰 완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프리미엄 스파클링 주류 ‘지마’ 출시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6월 5일 세계 3대 맥주 기업인 몰슨 쿼어의 프리미엄 스파클링 주류 ‘지마’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마’는 몰슨 쿼어의 주류 제품 중 하나로 1993년 미국에 처음 출시된 후 일본 시장에 진출하며 일본의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과 더불어 종합주류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의 의지가 담겨있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기존 제품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주류 시장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선주조(주)

부산시관광협회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대선주조(주)는 6월 7일 대선주조(주) 본사에서 부산광역시관광협회와 부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800여 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부산시관광협회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향토 기업 제품인 대선 소주를 적극 홍보하고 공장 견학 등의 관광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대선주조(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관광협회 정식 회원으로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대선주조(주) 조우현 대표는 “부산시관광협회와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선주조가 함께 부산을 프로모션 해나가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 제12기 워크숍 개최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 제12기[회장 이광수(지티에스 국제물류(주) 대표)]는 6월 9일~10일 양일간 진주-사천-남해 일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경제인과정 12기는 이번 워크숍에 40여 명의 원우가 참석한 가운데 12기 원우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글로벌경제인과정은 지역의 차세대 기업인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자 지난 2011년 개설되었다. 글로벌경제인과정은 12년



동안 530여 명이 넘는 지역 기업인들이 수료한 지역 최고의 CEO 교육과정으로 수료이후에도 글로벌경제인 총원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주)스마트W종합건설

건강케어 레지던스 호텔 ‘올집 아카이브4H 부산’ 오픈

(주)스마트W종합건설은 6월 8일 건강케어 레지던스 호텔 ‘올집 아카이브4H 부산’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 박만일 회장,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최금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집 아카이브4H 부산’은 뉴욕, 런던의 1~2인 가구 커뮤니티 시설을 한국식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며, 조식, 개인PT, 입주다이어트, 반려동물 호텔, 호텔컨시어지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스마트W종합건설은 추후 부산대, 동아대, 센텀시티, 송도 등에서도 ‘올집 아카이브4H’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프린테크

기후 알림장 3만부 초록우산에 후원

(주)프린테크는 6월 15일 부산시환경교육센터·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 환경권 보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및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민과 의무이행자들의 기후환경에 대한 민감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공동으로 노력해나가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프린테크는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알림장 3만부를 제작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후원하였다. (주)프린테크 관계자는 “부산의 향토 인쇄 업체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교육 교재를 후원하게 되어 기쁘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ESG경영과 실천을 위한 계획을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슬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2023년 7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01

인사노무리스크 관리 실무교육(1탄) 사업주/관리자를 위한 노무리스크 관리 및 노무비절감 방안

- 일시** 7.6.(목) 09:30 ~ 17:30(7시간)
-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 강사** 이원희 노무사(노무법인 가교 대표)
-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제	내용
채용 시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절차공정화 리스크 관리 채용내정취소 리스크 관리 수습근로자 리스크 관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근로자) 리스크 관리
근로시간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근로시간 산정 리스크 관리 야간·휴일근로 리스크 관리 인건비 절감을 위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리
휴일·휴가·휴직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일의 대체, 대체공휴일 리스크 관리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리스크 관리 출산·육아휴직 리스크 관리
임금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임금제 리스크 관리 평균임금 산정 리스크 관리 통상임금 산정 리스크 관리 최저임금 산정 리스크 관리
여성·비정규직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리스크 관리 여성·비정규직 차별 리스크 관리
근로관계 종료 시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이동 리스크 관리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 리스크 관리 징계(정직, 해고 등) 리스크 관리

02

인사노무리스크 관리 실무교육(2탄)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핵심 인사노무 관리전략과 대응방안

- 일시** 7.7.(금) 09:30 ~ 17:30(7시간)
-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 강사** 이원희 노무사(노무법인 가교 대표)
-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제	내용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노무관리지도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방향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항
근로감독 체크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 임금대장 체크포인트 급여명세서 체크포인트 연차휴가대장 체크포인트 출·퇴근부 체크포인트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체크포인트 취업규칙 심사 체크포인트
근로감독 대응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감독 시 핵심서류 준비 근로감독 대비 자율점검표 근로감독 시정지시서 개선 요령 근로감독 지적사항의 처벌조항 근로감독 수검시 유의사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대응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절차 및 징계양형 체크포인트 징계사유 조사보고서 작성 체크포인트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체크포인트

03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절세 설계 및 전략 핵심

- 일시** 7.14.(금) 09:30 ~ 17:30(7시간)
-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 강사** 김창영 세무사(세무법인 동양 대표세무사)
-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제	내용
절세설계와 상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의 범위 주주총회의 상법절차 및 관련 사례 정관의 변경과 공증 이사회의 구성요건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행사와 주주명부
소득유형과 절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의 의의 및 정관의 주요 조문별 진단 상장기업의 정관 벤치마킹 방법 임원보수의 법적근거(상법 및 세법)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비상근임원 보수의 처리 임원보수의 손금의 판단기준 및 손금불산입 사례 임원퇴직금의 법적근거 및 손금산입 요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등기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 임원퇴직금 지급시 상황별 조세문제 및 손금불산입 사례 유족보상금과 조세문제 및 비교세 요건 유족보상금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재무활동과 절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배당(차등배당) 조세문제 및 대응방안 지분구조 분산설계의 효과 중간배당의 필요성 및 매년 성과보상의 의미 가업승계관련 특례제도의 중요 이슈 자기주식취득의 논란과 가지급금 판단기준 자기주식취득과 간주취득세 자본감소의 조세문제와 증여후 이익소각 자본감소거래 결과분석 및 판례 분석

04

2023년 개정세법 해설과 전사원이 알아야 할 접대비와 소비성 경비에 관한 지출 증빙서류 세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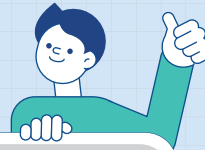
- 일시** 7.19.(수) 09:30 ~ 17:30(7시간)
-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 강사** 오종원 회계사(상속·증여 세무전문가)
-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주제	내용
2023년 주요 개정세법 해설과 소비성경비 적격증빙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개정된 법인세/부가가치세, 소득세 주요 내용 해설 적격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시의 2023년 개정된 판매장려금 계산서 교부시 유의사항 적격증빙 구비에 대한 최신 행정해석 분석
지출증빙 특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유형 분석
접대비 지출시의 적격증빙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개정 접대비 지출시 세무관리 접대비와 소비성경비의 세무관리 차이점 분석 상품권 등 지출시의 세무관리 국세청 세무조사시 주요 추정사례 분석
기타소득 등 인적용역 지급시의 적격증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개정된 인적용역 대가지급시의 증빙관리방법
조세전문가의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생 개별사안에 대한 조세전문가의 개별상담



일포유·칠루와 부산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의 정규직 채용 촉진을 위해
취업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모집기간: 사업공고일 ~ 2023. 12.(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 까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좌 개설 필수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연령 무관
- 지원요건: 2023. 3. 1. 이후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조선·기자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
-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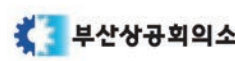
※ 2023. 1. 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금액: 근로자가 1년간 근속 시, 600만원 자산형성



신청절차

- 신청방법: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매칭 플랫폼(www.bcci.or.kr/job/) 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제출(bcciplus@korcham.net)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적립통장 개설] → [지원금 적립] → [만기사실 통보] → [만기금 지급]
-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4~6 F. 051)990-7149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 플랫폼」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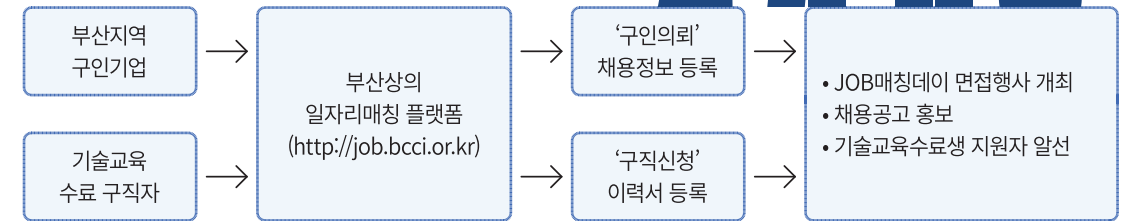
직업교육 전문기관 기술교육생 JOB 매칭

사업내용

- 구인·구직 JOB매칭데이 면접행사 개최(7월, 9월, 11월 예정)
- 상시 온라인 일자리매칭
- 정부 일자리지원사업 연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일자리매칭플랫폼(URL: <http://job.bcci.or.kr>)



「3차 구인·구직 JOB 매칭데이」개최

일시 2023. 7. 20.(목) 10:00 ~ 16:00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2층)

대상

- 기업: 부산지역 구인기업 15 ~ 20개사
- 구직자: 직업교육 전문기관 기술교육 수료생

주요내용

- 직업교육 전문기관의 기술교육 수료생 인재풀을 통한 JOB매칭
- 행사 전,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 면접타임테이블' 제공
※ 참여기업 별도 소요비용 없음

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5, 7198



쓱쓱이가 바른기업



쓱쓱이가 바른기업이란?

대한민국 위기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20만원 이상 정기기부에 참여하는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기업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업 로고를 삽입한 명패를 제작해 드립니다.

쓱쓱이가 바른기업 참여혜택

- ✓ 쓱쓱이가 바른기업 명패 제공
- ✓ 기부금 공제 혜택
- ✓ 적십자 포상 수여 (기부금액 충족 시)
- ✓ 언론사 홍보

위기가정 선정 및 전달 과정



01 전국 12만 봉사원이 지역 내 위기가정을 직접 발굴합니다.

02 실태조사 및 지자체 사실확인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03 대상별 심의를 거쳐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04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꼭 필요한 도움을 전합니다.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 | 외부 회계법인 감사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 정보공개제도 운영



▲ 참여하기

쓱쓱이가 바른기업 참여문의 ☎ 051) 801-4011~4013



연습포 준비되어 있습니다.

BUSAN is good for the EXPO.

“Amazing BUSAN!”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BIE 실사단은 “부산은 모든것을 갖춘 도시”라며 최고의 감동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3.4.2~7	2023.6	2023.11	유치 성공 시, 2030년 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BIE 실사단 방문 완료 (인프라 및 유치 열기 등 평가)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개최국 선정 투표 (171개 회원국 비밀투표)	61조원 경제 효과 50만명 일자리 창출 3,480만명 방문 예상



친환경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보



WC300 인증 동탑산업훈장 국가생산성 대상 가족친화기업 대한민국 해양대상

We provide solutions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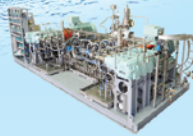
- LNG Fuel Tank
- Fuel Gas Supply System
- BOG Handling System
- Bunkering System
- N2 generating System, Gas Detection Systems and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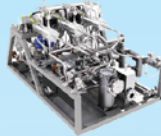
LNG Fuel Tank



Recondensing System



High-pressure Pump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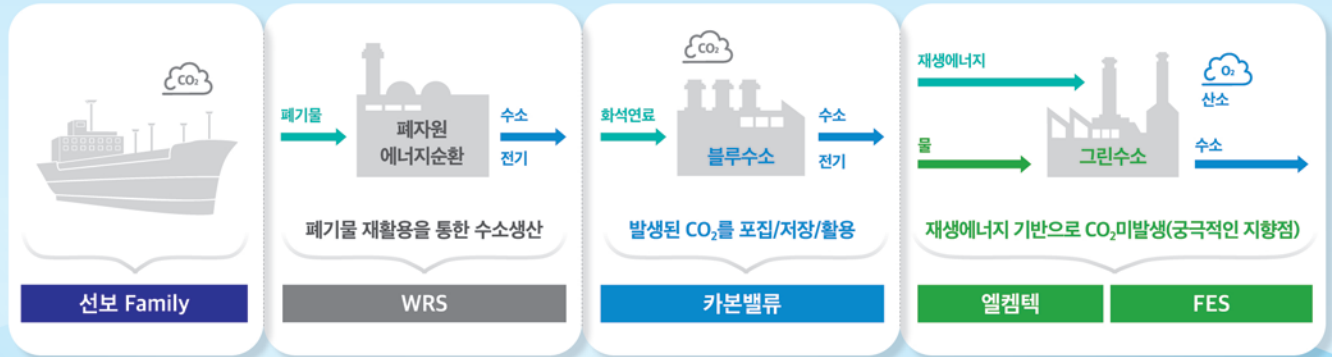


Bunkering Station



Vaporizing and GW System

선보 Family GAS VALUE CHAIN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선보피스(주)

선보공업 주식회사

본사1공장 부산 사하구 다산로 80
TEL. 051.261.3454 FAX. 261.3455
다대2공장 부산 사하구 흥티로 100
TEL. 051.263-3459 FAX. 263-3457

선보유니텍 주식회사

구평공장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61
TEL. 051.266.3454 FAX. 266.3455
대불 공장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5로 123
TEL. 051.260.5651 FAX. 266.3455

선보하이텍 주식회사

영암 공장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단서부로 23
TEL. 061.462.3454 FAX. 462.3455

선보엔젤파트너스

해운대본사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1 센텀스카이비즈 A동 2802호
TEL. 051.743.3453 FAX. 743.3423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서울오피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4, 14층(역삼동, 중유빌딩)
TEL. 02.578.0323

선보피스 주식회사

김해공장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TEL. 055.721.0035 FAX. 724.0039

서울오피스 서울 강남구 논현로97길 71
울산오피스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과학기술원 114동 808호
TEL. 052.254.3457

울산오피스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울산과학기술원 114동 806호